

평화롭지 않다는 것

구수현 (미술 작가)

이 글은 [2020 서울평화문화축제] 중 <예술가 창작 연구> 발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각예술가 이웅철의 연구에 대한 리뷰이다. 작가는 축제의 큰 주제인 ‘평화’라는 개념의 연구를 스스로 평화롭지 않은 상태라 인지하고, 그 이유를 자문하며 시작한다. 그리고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 상황, 그중에서도 팬데믹이 가져온 여러 이슈와 매스 미디어 현상을 키워드별로 열거하고, 이를 하나씩 해석해 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 리뷰도 작가의 이러한 연구 방식에 상응하려는 제스처로서 그가 진행한 연구와 작업으로의 발현 과정을 쫓아가며 키워드로 나열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슈로부터 출발하기

경험해본 적도, 제대로 상상해본 적도 없는 전염병의 발발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당연했던 것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돼버리고, 언젠가부터는 끝이 오기를 기다리고 말하는 것조차 속없는 낙관주의자가 된 기분이 든다. 가까운 미래마저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함의 공기가 곳곳에 그리고 깊숙이 정체되어 있다.

지금의 상황은 미술가들의 활동과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짐은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움츠러들게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과 실험이 무의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또,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의 주제로 수렴하는 전에 없던 대화의 경험은 지금을 온전히 직시하고 느끼라는 압박처럼 다가온다. 그렇다고 지금의 이슈를 작업의 주제로 가져오기엔 그 무게감에 비해 속도가 너무 빠르지는 않은지 멈칫하게 하지만, 이것이 지금이고 현재이기에 결코 모른척할 수가 없다.

이웅철은 ‘평화’라는 다소 추상적인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먼저 둘러본다. 평화가 평온한 상태를 뜻한다면, 그는 스스로 평화롭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때문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대상을

알아보기로 연구의 방향을 잡는다. 만약 현재와 같은 강력한 이슈가 없다면 그는 과연 '평화'라는 주제에 어떻게 접근했을지도 궁금해진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은 전부이며 또 필수다. 그렇게 작가는 '팬데믹'에서 파생한 주제, '언론', '알고리즘', '무감각', '언어의 정치학' 등을 나열해간다. 각각의 주제들은 선형적 구조와 상관관계를 갖지만, 한편으로는 또 독립적이다.

주제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그의 연구 자취를 따라가려 한다. 먼저 '팬데믹'에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 사회 안의 문제가 고조되는 촉발점으로서 현재의 전염병을 바라본다. 인종 혐오와 종교적 갈등, 정치적으로 이분화되어 가는 현상 등을 짚어가며 이는 결국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언론'의 문제라고 한다. 이어지는 '언론'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분법적 사고가 이익 관계에 의한 편향적 태도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편집과 프레이밍으로 인한 정보의 과장과 소외, 진위 불분명함의 무한 반복이 사람들에게 피로감과 환멸감을 주고 이것이 결국 무관심으로 변질하는 기현상의 원인이라 해석한다. '알고리즘'에서는 온라인 미디어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재편되어 특정 콘텐츠의 소비를 조장하고 정보의 위계를 만드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시스템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처럼, 알고리즘에 의해 노출되는 콘텐츠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의 관심사, 정보의 깊이보다는 넓이와 속도감으로 인해 공허함만 남는 문제를 인지한다. '무감각'에서는 획일화되고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가 개인의 판단 능력을 떨어뜨리고, 개인의 가치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장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무감각에서 오는 비판 의식이 결여는 자기 권리 주장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무관심의 현상을 만든다. '언어의 정치학'에서는 자극적 표현을 자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순화된 언어가 사회적 문제의 각성효과까지 떨어뜨리고 마비시키는 현상을 짚어낸다.

작가는 연구 주제마다 일정한 속도와 온도를 유지한다. 꽤 정제된 문장과 단어로 정리해나가는 연구 내용을 따르다 보면, 그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함을 알 수 있다. 또 각 주제 연구의 끝에 공허, 무감각, 무관심, 마비와 같은 단어들로 연결됨에서, 사회가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끼침을 인지하며 그중에서도 불가항력 상태로서의 허무감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가 관심을 보인 심리적 상태 또 유지하고자 하는 일정한 거리 즉, '객관적 거리'를 그의 작업에도 연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객관적 거리

이번 연구 과정을 통해 발표한 그의 작업은 ‘객관적 거리’라는 태도와 연결해 볼 수 있다. 평면의 그래프를 3d 프린터로 입체화하여 조각물로 만들거나 <어느 젊은 보수 정치인과의 대담>에서는 인터뷰 과정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로써 그의 작업에서 객관적 지표와 데이터가 중요한 매재(媒材)임을 알 수 있다. 특히나 그래프 조각물들은 설문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입체물로 사출하기 위해 3d 출력기에 데이터로 입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눈에 띈다. 보통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다가도 작업물로 이어질 때 작가의 주관적 표현이나 감각이 개입하곤 하는데, 그는 이 과정에서도 데이터화 혹은 자동 기계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다른 작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초기 작업인 <무감각의 병리_파리 & 브뤼셀>(2017) 작업에서는 -디지털 데이터로 이루어진- 웹상의 보도 사진을 포토샵 프로그램 안의 필터를 통해 자동으로 변환하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때도 작가적 개입이나 감정 표현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도출한 결과를 따른다. 이러한 선택이 허무감 혹은 무감각의 감각과 상관관계가 있을까. 계속해서 정제시키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감정은 어떤 심리에서 오는지, 또 한편으로는 정제시키려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미끄러짐, 탈락하고 소거된 감각을 의미 있게 끌어낼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탈락과 소거

이번 연구가 작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현직 국회의원 220여 명에게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들의 무응답으로 인해 작가가 당혹스러워 한 부분이다. 물론 작가는 당혹스러움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면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정치적 소신을 밝히며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최종적인 인터뷰이로 삼았다. 앞서 언급한 시행착오나 미끄러짐의 미학은 이 부분에서 드러나나 최종 작업물에서는 걸러진다. 만약 이 시행착오를 적극적으로 사 건화하고, 국회의원들의 이메일 주소에 “sotong”이 많다는 점을 역설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의 작업이 나왔으리라 상상해본다.

탈락과 소거의 감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작가의 과거 작업 중 <동요하는 걸음>(2019)에서 수행적 행위에 따르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함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감각이 드러나는 점이 의미 있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루에 두 번씩 새롭게 그려지는 갯벌의 표면 위에 작가는 직접 만든 콘크리트 블록으로 자국을 낸다. 여기까지

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체적 장면들에서는 미끄러운 진흙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기우뚱거리고 불안 불안한 감각이 그대로 담겨있다. 한 발 한 발 내딛어가는 위태로운 걸음을 쫓으며 대자원의 풍경 위에 작은 그리고 곧 없어질 흔적을 남기는 시도에 응원을 보내게 된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이런 감정과 감각들을 너무 지우려고만 하지는 않았을까. 어설피고 성겨도 인간이기에 공감할 수 있고, 공유 가능한 감각들 말이다.

평화롭지 않다는 것

균형과 중심이 잡혀있고, 반듯하고 단정함이 늘 최선인 것은 아니다. 예술은 평화롭지 않은 상태를 추구할 때 더 생산적이다. 완벽하고 안정된,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는 아무런 동요도 일으키지 않는다. 뻘컘 튀어나오고,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상태는 불편하고 거슬릴지언정 가만히 두진 않는다. 이것은 어떤 움직임이 있기 직전의 잠재적이고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작가가 연구의 마지막에 언급하듯, “현실의 많은 부분을 의심하고 예민하게 지각할 수 있는 상태”는 작업의 좋은 출발점이다. 이러한 시선에서 출발하는 작업은 계획을 세우다가도 무너지고, 정리하려다가도 뒤엎키고, 앞으로 나아가려다가도 다시 뒤돌아온다. 분해되고, 벗어나고, 해체되고, 조각나고, 단절되어 고장 난 시도가 가져오는 착오와 오차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의식과 감각의 생산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응원을 보낸다.

구수현은 평범한 물건들을 수집하고 재위치 시키는 작업 <be normal: 정상처럼 굴기>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구조적 위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제도와 구조로부터 정해지는 역할과 관계, 이로 인한 현상에 꾸준히 관심이 있으며 근래에는 관찰의 대상을 미술현장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술현장에서 다양한 포지션(전시장 지킴이, 도슨트, 인턴 큐레이터, 디자이너, 설치 어시스턴트)으로 일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주변부로부터의 접근과 해석을 시도하고, 역할에 의한 행동방식과 심리상태에 주목한다. 최근에는 작업 <컬렉터의 비밀창고>와 <OPENING HOURS>를 통해 제도에 대한 작가적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